

생명의 빵 하늘의 빵 ♪

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들은 독일의 나치에 의해 박해와 살생을 당했습니다.

한 유대인 부자도 이 무서운 고난을 견디다 못해 모든 재산과 가족을 버리고 프랑스 파리로 피해 갔습니다.

허기진 배를 채우고자 이 거리 저 거리를 서성거리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.

어느 날 아침, 그는 한 거리의 빵집 앞에서 구수한 냄새만 맡고 있었습니다. 다른 유대인 청년도 부러운 눈으로 맛있어 보이는 빵을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. 그런데 갑자기 골목에서 누더기 옷을 입은 거지 한 사람이 나오더니 빵집으로 들어갔습니다.

잠시 후 겨우 한 개를 사서 들고 나오더니 그것을 그 청년에게 주고 사라지는 것을 이 유대인 부자가 목격했습니다.

그는 후일 사람들을 만나 그때 일을 들려주면서

"그 거지의 빵은 자기 생명을 주는 빵이요,

그 청년의 육체와 정신을 살린 하늘의 빵이었다"고 말하였습니다.

거지가 돈을 주고 산 빵이라면 그것은 목숨과도 같은 것입니다.

그런데 이름도 알지 못하는 거리의 굶주린 청년에게 말 없이

그것을 주었다는 것이야말로 생명의 빵, 하늘의 빵이 아닐 수 없습니다.

베르자예프(N. Berjaev)는 "내가 먹는 빵은 하나의 물질이지만

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빵은 영적인 것"이라고 말했습니다.

예수님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 목자이십니다(요 10:15).

양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시고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.

예수님은 죄의 뿌리를 뽑아 버리시고 죄의 세력에서 인간을 해방시키고자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.

출처 - 좁은 길 넓은 길 / 장기천 (2002/04/13)

♪ 여러분의 가장 깊은 한숨을 아시는 그 분을 만나십시오. 「더 깊은 묵상」 제공